

무덤속에서 어머니 젓 먹고 살아나 출가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 (35)

전생에 우유죽 공양한 수타의 공덕

전다월이라는 국왕이 있었다. 바라문을 받들어 섬겼으므로 국정을 다스리는 데도 역시 바라문들을 임용했다. 왕이 작은 부인을 중히 여기자 다른 부인들은 미워하고 질투하여 그의 신하 중 하나인 바라문에게 금을 선사하면서 왕에게 그녀를 할뜰는 말을 해 달라고 부탁했다. 부탁을 받은 신하는 왕에게 말했다.

“그 작은 부인이 아들을 낳으면, 반드시 나라에 우환이 있을 것입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언짢아하면서 신하인 바라문에게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미와 자식을 함께 죽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중한 것인데,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만약 죽이지 않으면 나라도 망하고 대왕도 죽을 것입니다.”

얼마 후 작은 부인이 아들을 낳자 왕은 결국 두 사람을 죽여 버렸다. 그러나 잘못 죽여 아이는 무덤 안에서 살아났고, 그 어머니의 땀을 먹어 씹지 않았기에 아이는 그 젓을 먹고 살았다. 그렇게 3년이 지나 그 무덤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 아이는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아이는 산짐승들과 함께 놀다가 날이 저물면 무덤으로 돌아가곤 했다. 아이의 나이 여섯 살이 되자 부처님께서서는 아이가 산짐승들과 놀고 있는 것이 염려되어 사문으로 변하여 아이에게 가셨다. 그리고 그를 불러 물으셨다.

“너는 누구 집의 아이냐? 어디에 살고 있는가?”

“저는 집이 없습니다. 다만 이 무덤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문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엇을 하려고 그러느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사문을 따르는 일 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서는 그를 데리고 기원으로 가셨다. 그 아이는 비구들의 점잖은 행동과 법칙을 보고는 매우 좋아하면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저도 비구가 되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이내 허락하시고 손으로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머리카락이 저절로 떨어지고 옷은 가사로 변했다. 이름은 수타라고 지었다. 계율을 지키고 정진하여 게으른 마음을 품지 않아서, 7일이 지나 아라한도의 도를 얻게 되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에게 말씀하셨다.

“전다월왕을 제도해야 한다.”

수타가 그 국왕에게 갔더니 국왕이 말했다.

“나는 마음에 큰 근심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수타가 말했다.

“국왕의 근심이란 무엇입니까?”

“내 나이 이미 늙었고 별써 때가 지났는데도 후사가 없습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수타가 왕의 말을 듣고 아예 대답도 하지 않고 혼자 웃고 말자, 왕은 이내 성을 내며 말했다.

“내가 사문에게 말을 했는데 아예 대답도 하지 않고 도리어 혼자서 웃기만 하는구나.”

그러면서 왕은 이내 수타를 죽이려 했다. 수타가

바새가 되게 했다.

그 때 부처님이 나타나 말씀하셨다.

“수타가 바로 왕자이다.”

왕은 부처님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며 어쩔 줄 몰랐다. 그러자 다시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옛날 구신니불 세상에 불사탑이라는 국왕이 있었다. 그 나라 안의 백성들은 모두가 3존께 공양하며 살았다. 그때 어느 평범한 백성 하나가 일거리도 없이 너무나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언젠가 나 나라 안의 부자와 귀한 이를 위하여 품팔이로 수백 마리의 소를 대신 치며 살았다. 한 번은 왕과 백성들이 비구 스님들에게 공양하는 것을 보고 물었다.

‘당신들은 지금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백성들이 대답했다.

‘우린은 지금 3존께 공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가는 곳마다 안락하고 존귀하며 힘들어 고생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그 백성은 생각했다.

‘나는 너무 가난하니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소의 젓을 달여서 우유죽을 만드는 것뿐이다. 그것이라도 깨끗한 마음으로 스님들께 올려야겠다.’

그러자 비구 스님들이 그를 위하여 축원을 했다.

‘그대로 하여금 태어나는 세상마다 복을 얻게 하리라.’

그때부터는 그는 나고 죽기를 거듭하는 동안 내내 그 일로 인한 복을 받았다. 어떤 때는 하늘로 올라가 천인이 되기도 했고, 어떤 때는 땅으로 내려와 왕후가 되기도 했다. 한번은 왕이었을 때 사냥을 나갔다가 새끼를 뺐 좋은 암소를 죽이게 되었다.

그러자 부인은 왕에게 말했다.

‘제발 그 새끼만은 죽이지 마십시오.’

그래서 소의 주인은 죽은 소의 배를 갈라 꺼내 길렀다. 그 주인은 성이 나서 말했다.

‘장차 저 왕도 이 소와 같이 되리라.’

그 후에 송아지의 혼신이 왕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아직 출생하기도 전에 그 어머니가 왕에 의해 죽게 되었으니, 그가 바로 지금의 수타이다. 수타의 어머니는 바로 그때의 왕의 부인이며, 바라문은 바로 소의 주인이다. 수타가 무덤 안에서 태어났고, 그 어머니의 땀을 반죽이 씹지 않아서 아이가 그 젓을 먹고 혼자서 자라나 를 수 있었었던 것은, 그 전생에 우유죽을 스님들께 공양했기 때문이다.’

왕은 이 말씀을 듣고 뜻이 풀리면서 수타원의 되었다. (전다월국왕경)에 나온다.)

동국대역경원 발행 <경률이상>에서 발행 재구성 구성=박재원 기자 wanhollo@hyunbul.com



삽화 · 강병호

그의 뜻을 알아차리고 가벼이 날아올라 공중에 서서 분신으로 몸을 끝없이 나고 들고 하자, 왕은 수타의 신통을 보고 이내 허물을 뉘우치며 말했다.

“제가 실로 어리석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원컨대 귀명(歸命)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수타는 이내 공중에서 내려와 왕에게 말했다.

“만약 귀명을 하시겠다면 매우 좋은 일입니다. 부처님께 귀의하여야 합니다. 부처님께서서는 바로 저의 스승이시며 삼계의 높은 분으로서 중생을 제도하십니다.”

수타는 순식간에 왕과 백성들을 데리고 부처님께로 가서 3존에 귀명하고 5계 수지를 청하여 우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㉔



추억

큰 스님들 곁에서 행복했던 시절

어느날, 옛날 사진첩을 보게 되었다. 그 옛날 처녀시절 아니 부산 불교 청년회 시절부터, 아주 오래된 사진을 오랜만에 꺼내 보게 되었다.

해인사 수련회에 갔을 때 자기보살이라 불렀던 지월 스님께서 주지로 계시 때였다. 종정 고암스님과 퇴설당의 성철 스님 일타 스님 범정 스님 지관 스님 그리고 현재 송광사 방장이신 보경 스님 등 큰 스님들이 그곳에 다 모여 계셨다. 대각사에서 기도하던 나는 서문에서 우연히 일타 스님을 만나면서부터 감로사를 알게 되었다. 스님의 속가 외삼촌인 보경 스님(자운 스님의 만 상좌)이 주지인 사실도 알게 되었다.

감로사는 아마타 부처님을 모신 절이어서 나는 백일기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매일 새벽 감로사를 찾아 기도를 올렸다. 주지 보경 스님은 평소 엄격하고 불같은 성격이었으나 내게는 한없이 인자했다. 아마도 그 당시 처녀가 기도하는 일이 드문 일이어서 기특하게 생각하신 것 같다. 매일 백팔배를 하고 나올 때마다 스님은 전날 재를 지낸 갖가지 과일이며 과자, 떡 등을 내어 주셨다. 그리고 일타 스님께서는 언제나 작설차를 드셨는데, 내가 차를 마시게 된 것도 그때부터였다.

행복했던 지난 날 떠올리면 함께 사는 사람들 소중해져

감로사에 자운 스님이 가끔 다녀가시고 일타 스님, 도견 스님이 자주 오셔서 많은 스님들과 법담을 나누고 계셨던 것으로 기억이 된다. 나는 운이 좋았다. 스님께서 주시는 차도 마셨고 어렵지 않게 스님들의 법담도 곁에서 들을 수 있었다.

어느 날, 보경 스님의 얼굴이 안 좋아 보였다. 무언가 근심이 있어보였다. 연유를 여쭙자 스님은 “내가 큰일을 저질렀지 뭐냐” 하시며 이야기 하시기를 해인사에 계시던 자운 스님께서 장삼과 가사 그리고 입을 옷들을 소포로 보내셨는데, 아무런 편지도 없고 해서 스님 입으라고 보내신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옷들이 조금 커서 그 옷들을 모두 잘라 수선을 했는데 나중에 자운 스님이 “옷을 잘 받아 두었느냐?”며 전화가 왔다는 것이다.

나는 스님이 관련한 지경임을 알면서도 상황이 우스워서 웃음을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웃고 말았다. 지금 생각해보니 스님께 죄송했다. 그래도 스님은 여전히 나를 챙겨주시고 잘 대해 주셨다.

어느 해인가 보경 스님이 출가한 날을 기념하여 스님과 함께 방생을 간 적이 있었다. 버스에는 노보살님들만 가득 타고 젊은 사람은 나 혼자서 창밖만 보고 있을 때였다. 일타 스님께서 오셔서 나를 자가용으로 데리고 가셨다. 그런 자가용이 흔하지

않았다. 구포 강으로 갔을 때 여기저기서 아낙네들이 “내 고기 좀 사이소!” 하며 모여들기 시작했다. 스님은 다가가 고기 값을 물으셨다. 나는 “다 죽어 가는 고기를 왜 다 사느냐”고 했더니 스님은 “가만히 좀 있어봐라 죽고 사는 것은 자기 명이고, 살려주는 마음은 차별이 없어야 한다.”며 차비까지 다 털어 그곳의 고기를 다 사셨다. 그래서야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스님은 배를 빌려 타고 염불을 하시고 묵탁을 치셨다.

나는 물고기를 한 마리 한 마리를 물에 놓아주다가 아까 본 잘 생긴 고기를 번쩍 들고 “스님! 이고기 참 크고 멋있지요?” 하면서 스님 앞에 보여드리기도 했다.

다음날 감로사에 갔을 때였다. 노보살님 한 분이 스님께 “왜 가시나를 하나 달고 다니느냐?”고 따지고 계셨다.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았다.

스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응, 이 아이 말인가? 바로 명조당 한약방 딸인데 신심이 있어 같이 가자고 했지.” 하시니까 그 노 보살님 얼굴이 확 바뀌면서 내 손을 잡고는 “그래 네가 명조당 딸이라고? 이제부터 너는 내 딸이 되리라.”고 하셨다. 우리 집을 잘 아시고 계셨던 것이다.

그 보살님은 그 후 늘 나를 챙겨 주셨고 나는 어머니라 부르며 따랐다. 이렇듯 많은 스님들과 어른 보살님들의 사랑을 받으며 나의 신행생활은 늘 행복했다. 그 시절이 너무나 그리웠다. 그저 지난 시절로 물어버리기에 그 시절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했다. 가끔씩 행복했던 지난 시절을 생각하면 함께 했던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된다.

태국 항공사 승무원들

오늘 내가 절하는 방에서 26년 전 인도 성지순례를 다녀온 흔적을 보게 됐다. 오래 전 일이지만 다시 가슴이 설레었다. 그때만 해도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어서 길도 험할 뿐 아니라 음식이며 여러 가지가 불편했다. 그때 30명의 도반들이 함께 했는데, 스님 15분, 우리 회원 15명이었다. 나는 당시 총무를 맡고 있었다. 요즘 우리나라의 폭염이 그때의 인도를 생각하게 했다.

23일의 긴 여행이었는데, 태국 항공 노조의 시위로 3일 동안 태국에 머물게 되었고, 여행은 예정보다 더 오래 걸렸다. 그러나 놀라웠던 것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방콕에서 인도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였다.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승무원들이 몇몇 스님들께만 공양을 드리고 우리에게 아무런 말이 없어, 우리 일행은 공양이 없는가보다 하며 가방엔 과자며 빵으로 식사를 대신하고 있었다. 그런데 스님들의 공양이 끝나자 승무원들이 우리 식사를 가져왔다.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스님들을 특별히 공양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스님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인지 생각해 보게 됐다.

부산 연꽃모임회장



성종사, 대만 최대 불광산사 범종 수출!

세계로 수출되는 성종사 범종! 우리의 자랑스런 불교문화유산입니다.



불광산사 범종 (중량 6700관)

최근 세계적인 범종 제작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성종사가 대만 최대 사찰인 불광산사 범종을 수주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대만 최대 규모인 6,700관(25.5ton)으로 제작된 본 범종은 성종사 특허공법인 밀랍주조공법으로 제작되어 표면과 문양이 매우 매끄럽고 섬세할 뿐만 아니라, 음향측정 결과에서도 소리가 매우 웅장하고 맥놀이가 뚜렷하다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성종사의 범종은 대만,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전세계 불교권 국가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종을 위해서 한쪽 눈을 바쳤어
흔을 담아야 천 년의 소리가 나오는 거지
잔재주 부리면 끝이야! 끝!

고객을 위한 원칙과 고집
한국의 명장,
당신의 마음을 배우겠습니다!



- 전사관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02)733-6141 / FAX 02)733-4840
- 사이트 : www.sungjongsang.co.kr / E-MAIL : sungjongsang@hotmail.com
-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TEL 043)536-2581 / FAX 043)536-2582
- 대 표 : 범산 원 광 식 (중요우형문화재 제 112호 · 대한민국 명장)

